

“열린 출협, 일하는 출협으로 다시 태어날 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신임 회장 나춘호씨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회원사들의 손발이 되어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상대후보의 공약도 성실하게 검토, 협회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선거에서 황근식후보(44, 등지출판사 대표)를 물리치고 임기 3년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나춘호(羅春浩·55, 예림당 대표)씨는 “출판을 산업으로, 협회를 단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출협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판업에 입문한지 30년이 되는 신임 나 회장은 아동도서전문 출판사인 예림당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7년동안 협회 부회장과

상무이사 등을 맡아 출협의 내부살림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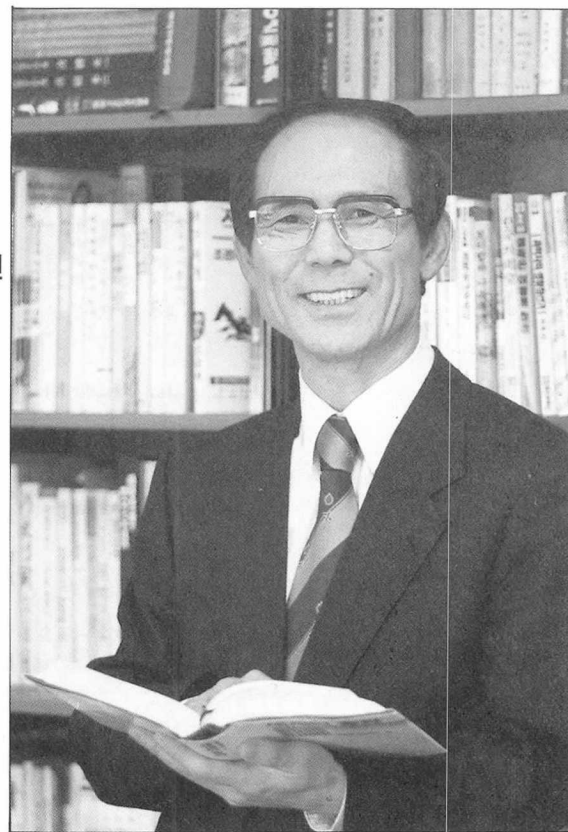
정보공유로 현안에 공동대처

“21세기에 대비해 출협이 어느 때보다 많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문턱이 없는 열린 출협,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거대 사업군과 싸울 힘을 가진 출협, 종지 않은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출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회장이 임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은 ▲친목 도모와 위상 강화 ▲불황타개 ▲첨단화 및 세계화 ▲대북한 교류 창구 개설 등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출판사들을 힘들게 하는 반품·재고도서는 상설매장이나 책의 거리 등을 만들어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출판불황의 요인인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POS 및 VAN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배 출판인들이 피와 땀으로 키워온 출협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결심입니다.”



신임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

스케치

시종일관 성숙한 선거분위기

총투표수 506표 중 383표로 나후보 승리



지난 2월28일 있었던 출협회장 선거에 선출된 나후보가 조합신임 이사장 박기봉씨와 함께 손을 번쩍 쳐들어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2시부터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강당에서 치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선거는 부회장·상무이사 등을 7년 동안 역임한 중진과 90년대 급부상한 베스트셀러 출판사의 젊은 경영자가 맞붙어 관심을 끌었으나 선거결과는 총투표수 506표(무효1, 기권1)중 383표를 얻은 나춘호 후보가 121표를 얻은 황근식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선거는 운동기간 동안 ‘모후보의 사퇴설’ 등이 나돌면서 흑색선전으로 과열되었던 분위기는 달리 투표는 2시간여, 개

표절차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30분만에 초고속으로 끝나 성숙한 선거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낙선한 황후보는 당일 소견발표에서 높은 목소리로 출협의 개혁을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으나 연료과 지명도에서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후문.

한편 일부 회원사들은 전체 811명의 유권자 가운데 예상외로 낮은 506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사실을 놓고 “출협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증거”라며 우려의 목소리.



전화’를 개설하고 정부기관은 물론 출판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불황타개를 위해서는 불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계화 위한 다각도 정책도 추진

나회장은 우선 “출판사들을 힘들게 하는 반품도서 및 재고도서의 처리문제를 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해 상설매장이나 책의 거리 등을 만들어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간의 경우도 대도시의 지하철역이나 공원 등지에 우수도서 전시장을 마련, 영세출판사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출판불황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전근대적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ISBN 업무를 출협으로 이관토록 하고 임기내에 POS 및 VAN 시스템을 구축, 물류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회장은 출판업의 첨단화 및 세계화를

위한 계획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로 전문 출판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출판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둘째 전자출판 및 멀티미디어 출판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셋째 서울도서전에 해외 우수 출판사의 참가를 적극 유도해 국제도서전으로의 내실을 다지고, 네번째로 해외판 도서목록을 제작 배포하고 저작권의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임 나회장은 “도서정가제를 철저히 고수하고 도서대여점 문제 역시 합리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서울도서전부터 북한의 우수 출판물을 특별전시해 통일시대의 출판변화에 대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동포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더욱 확대해 출판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획하는 일 모두가 누가 해도 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동시에 회원사들의 도움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선배 출판인들께서 피와 땀으로 키워온 출협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1천2백 회원사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결심입니다.” — 허 연 기자

“공과 사를 분명히 가르는 원칙 지키겠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신임 이사장 박기봉씨



신임 한국출판협동조합 박기봉 이사장.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내세운 ‘협동조합 지키기’가 옳았다는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임기동안 주식회사 체제가 아닌 협동조합 체제로도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격변기 출판업의 중추적 기능을 해내는 조합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출판협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저를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하는 이사장이 될 생각입니다.”

지난달 27일 새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에 당선된 박기봉(朴琪鳳·50, 비봉출판사 대표)씨는 협동조합의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워 상대 후보인 서광사 김신혁 사장을 누르고 조합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임기동안 주식회사 체제가 아닌 협동조합 체제로도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신임 박 이사장은 “경쟁보다는 협동이 출판협동조합의 가치실현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주식회사로의 전환, 부지매각 등 조합의 장기발전계획안을 표결에 부치는 자리에서 강력한 비판론을 제기한 것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이사장까지 출마하게 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조합지키기’가 지지 얻은 듯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내세운 ‘협동조합 지키기’가 적절하고 옳았다는 자신감을 더

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격변기 출판업계의 중추적 기능을 해내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박 이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유통사업의 특화 및 전문화 ▲여신규모 확대 ▲협동조합 부지의 효율적 활용 ▲공동창고시설 확충 ▲정관개정 및 전근대적인 선거제도 개선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그는 협동조합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우선 현재의 여신규모 30억 수준을 1차로 150억 내지 200억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조합의 열악한 여신규모는 자금이 필요한 출판사는 많고 지원할 자금은 부족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증자운동 및 대금융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지원자금을 확보해 여신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됐던 협동조합 부지에 관해서는 기본 입장대로 “절대 매각하지 않고 대규모 오피스 빌딩을 지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된 이사장 및 임원선출방식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의 선거방식도 출협선거와 같이 일정한 기간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록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박 이사장은 아울러 정관개정에 대한 의사도 내비쳤다. “아직 검토가 전부 끝난 건 아니지만 정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 모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재도약의 계기로 승화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다 80년 친구를 돕기 위해 시작한 출판업이 천직이 되어버린 박 이사장은 평소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 왔으나 앞으로 3년 동안 개인적인 희생을 각오

하고 협동조합을 본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선거를 통해 분열되었던 조합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재도약의 계기로 승화시켜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기에 더욱 원숙하고 강한 조합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출판업의 위기설’은 전통적인 출판방식이나 출판업자들의 위기일 뿐 출판업 자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는 박 이사장은 “변화의 시기에 출판업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것이 조합이 해내야 할 중심기능”이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어려운 때 협동조합은 가장 좋은 결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연 기자

스케치

후보들 팽팽히 맞서 긴장감

225표 얻은 박후보가 더블 스코어로 당선

출협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2월27일 열린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개표 결과는 총 투표수 331표 가운데 225표를 얻은 박기봉후보가 김신혁후보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누르고 당선.

이번 선거는 협동조합 체제를 지키려는 박후보측과 부지를 매각하고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김후보측이 팽팽히 맞서 다른 어느 선거때보다 과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후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현직 이사장들의 서명이 들어있는 연판장이 조합원들에게 돌려진 것이 역효과를 일으킨 것 같다는 의견이 결과를 지켜본 조합원들의 중론.

한편 무기명 호선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조합의 전근대적인 선거방식을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한때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이 투표전



지난 2월27일 치른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모습.

에 단 몇분이라도 출마자의 소견발표를 듣자는 제의를 하자 이를 두고 조합원들의 찬반양론이 갈렸던 것. 신임 박이사장은 “교황의 선출방식도 바꾸는데 이젠 조합선거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